



하정봉



순천대 공공인재학부  
행정학 전공 교수

##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지방교육재정 지출 구조 분석과 시사점<sup>1</sup>



### 1.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인구 구조상의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최근 10년간 학령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초등학생 수는 3,474천 명에서 2,711명으로 22.0%, 중학생 수는 2,007천 명에서 1,334천 명으로 33.5%, 고등학생 수는 1,966천 명에서 1,536천 명으로 21.9% 감소하였다(〈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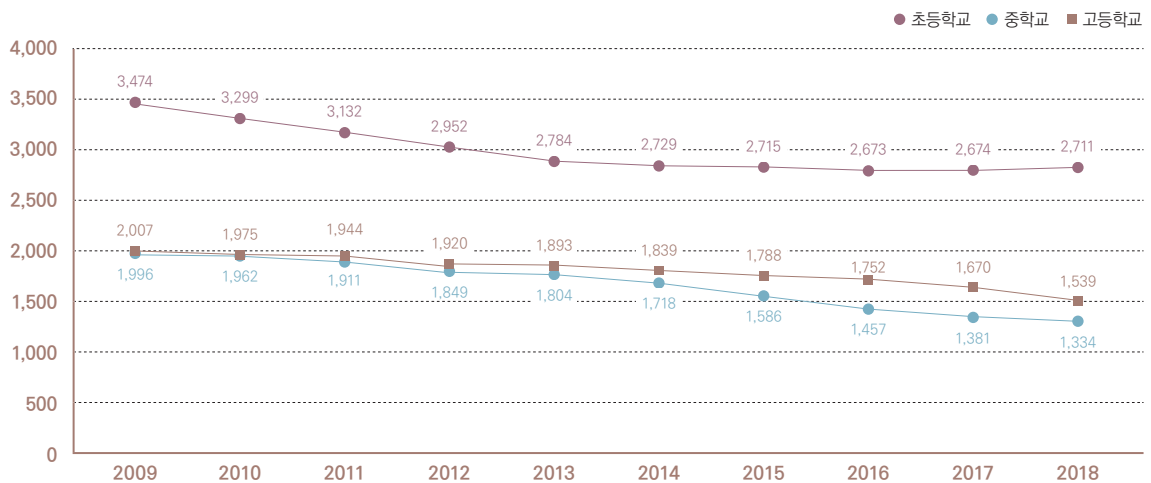
<sup>1</sup> 본고는 국회예산정책처 정책연구과제인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재정 배분 실태 분석: 유아·초·중·고 지원 교육재정을 중심으로(2019)'의 내용을 일부 수정·가필하여 작성한 것임을 밝혀둔다.

<sup>2</sup> 지방교육재정이란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도교육청의 재정활동을 의미하며, 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공·사립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다. 지방교육재정은 시·도교육청의 교육감이 관장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 분리되어 교육비특별회계로 별도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sup>3</sup> 다만, 교육재정알리미 사이트상에서 세부 사업별 데이터는 2013년부터 제공하고 있기에 세부 사업에 대한 분석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그림 1〉 초·중·고 학생 수 변화 추이

(단위: 천 명)

자료: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0~2019).

그런데 초·중등학교 학생 수의 감소와는 달리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2</sup>.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10년 동안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 규모는 45.5조 원에서 72.4조 원으로 59.2%가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평균 68.7%를 차지하는 중앙정부의 이전수입(대부분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33.2조 원에서 50.7조 원으로 52.5% 증가하였다.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에 연동되어 있어서 경제성장에 따라 내국세가 증가하면 그에 비례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증가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세입의 지속적 증가는 불가피하게 지출 구조의 적절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필요성으로 이어진다. 유·초·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지방교육청 차원에서 이러한 지출 구조 변화가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는지 추이를 확인해 보아야 하며, 세부 사업별로 과연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고는 제2장에서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과정을 살펴본 후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예산 총액 및 항목별 비중, 학생 수, 교원 수, 학교 수 등의 변화 추이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sup>3</sup>. 이어서, 제3장에서는 지출 구조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실시하는데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세부 사업에 대한 예산서 산식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탄력성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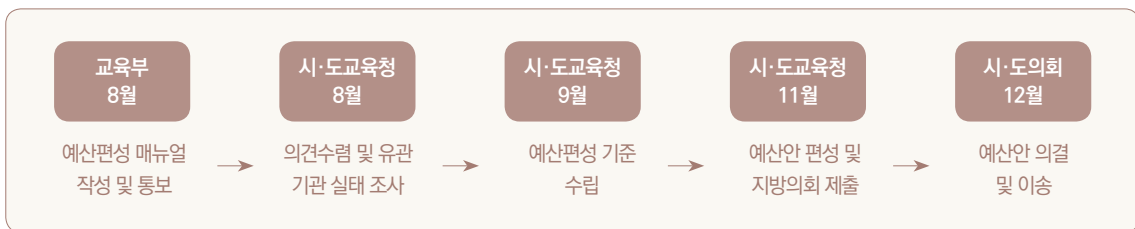
부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실제 예산지출 증감률 간의 차이를 분석한다. 둘째,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한 예산증가율 상위 및 하위 시·도교육청 2곳씩을 선정한 후 각 세부 예산증감률을 비교하여 차이가 큰 항목을 도출한다(정량적 분석).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으로써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할 때 예산의 효율적 배분 여부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해야 할 세부 사업 항목을 도출한다.

## II. 지방교육재정 지출 구조의 현황

### 1. 예산편성 및 배정 과정

시·도 교육비특별회계는 시·도교육청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회계로서 매년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예산편성 기준 및 교육청 시책·주요 사업 등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안을 작성한다. 작성된 예산안은 회계 연도 시작 50일 전(11월 11일)에 시·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시·도의회는 이를 회계 연도 시작 15일 전까지(12월 16일까지) 의결하여 확정하여야 한다(〈그림 2〉 참조).

〈그림 2〉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업무 흐름도



자료: 교육부(2017)

세출예산이 확정된 후, 세출예산 월별 집행 계획서를 사업 부서가 제출하면 예산 부서는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배정 계획을 작성한다. 예산 부서는 조정을 거쳐 배정 내용이 확정되면 관계 부서에 통지한다. 예산의 정기 배정은 배정 계획에 의거하여 분기별 혹은 월별로 일괄 배정되는데, 불가피하고 긴급하게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

4 한편, 직원 수(정규직)는 2010년 60,161명에서 2019년 54,953명으로 8.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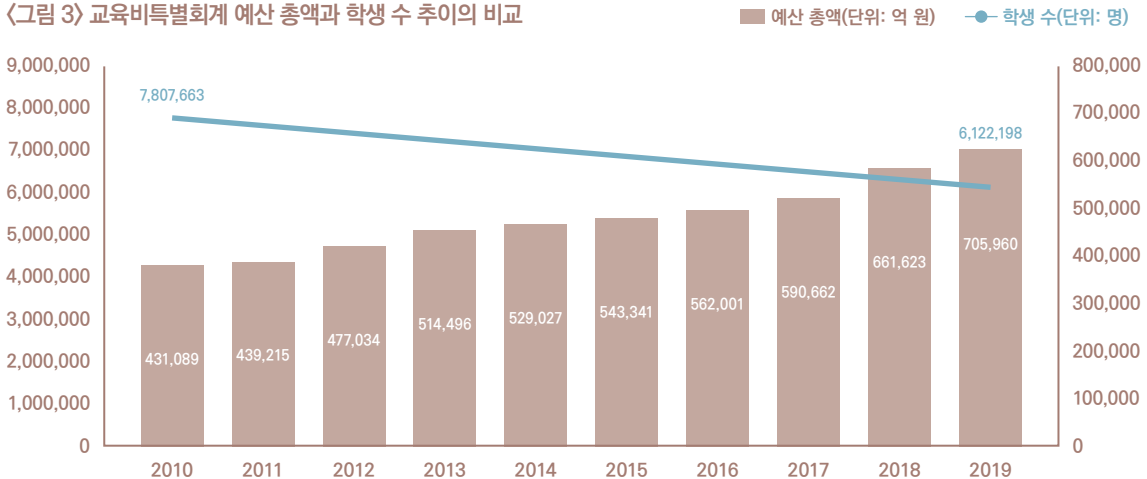
시로 배정된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 등 기타 사정으로 인한 변경이 있으면 이미 수립된 계획을 바꿀 수 있다. 결산서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회계 연도 5월 1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55조에 따라 예산 집행 결과 분석을 통해 재정 상태 및 구조 파악, 환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 2. 학생 수 감소와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총액 변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교육비특별회계의 당초 예산 기준 예산 총액 변화 및 학생 수 변화를 살펴보면 먼저 유치원 및 초·중·고 등의 학생 수는 2010년 7,807,663명에서 2019년 6,122,198명으로 21.6% 감소하였다. 학생 수가 줄어들었는데도 학교 수는 2010년 19,810개에서 2019년 20,743개로 4.7% 증가하였으며, 교원 수는 2010년 455,907명에서 2019년 496,504명으로 8.9% 증가하였는데 이는 학급당 학생 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sup>4</sup>.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는 2010년 26.6명에서 2019년 22.2명으로, 중학교는 33.7명에서 25.1명으로, 고등학교의 경우 33.8명에서 24.5명으로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19).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총액(당초 예산 기준)은 같은 기간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예산 규모는 2010년 43조 1,089억 원에서 2019년 70조 5,960억 원으로 63.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3〉 참조).



〈그림 3〉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총액과 학생 수 추이의 비교



주) 총학생 수에는 유치원, 초·중·고외에 특수학교, 고등기술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등이 포함됨.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365(<http://lofin.mois.go.kr/>),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알리미(<http://www.eduinfo.go.kr/>),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index>).

### 3. 기능별·사업별 세출 변화 추이

세출예산은 크게 성질별 분류와 기능별·사업별 분류로 구분할 수 있다<sup>5</sup>. 기능별·사업별 분류는 성질별 분류에 비해 더 체계적이며 개별 사업의 정책 목적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능별·사업별 세출 분류를 활용하기로 한다.

기능별·사업별 세출 분류는 부문-정책 사업-단위 사업-세부 사업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상위의 3개 부문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평생·직업교육 부문, 교육 일반 부문이다. 그리고 각 부문은 〈표 1〉과 〈표 2〉에서 보듯이 다시 정책 사업으로 세분화된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정책 사업은 인적자원 운용, 교수학습활동 지원, 교육복지 지원, 보건/급식/체육활동, 학교재정 지원관리, 학교교육 여건 개선 시설이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정책 사업은 평생교육, 직업교육이다. 교육 일반 부문의 정책 사업으로는 교육행정 일반, 기관 운영관리,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예비비 및 기타가 있다.

<sup>5</sup> 성질별 구분은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본지출(자산 취득), 상환지출, 전출금, 예비비 및 기타로 분류할 수 있다. 2019년 당초 예산 기준 항목별 비중은 인건비가 60.3%로 가장 높았고 전출금 19.4%, 자본지출 9.9%, 이전지출 4.4%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2010년 비중과 비교해 보면 인건비, 자본지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이전지출 항목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기능별·사업별 세출 항목 요약(정책 사업)

**인적자원 운용**

정규직 및 근로자 인건비 편성, 실무 능력 향상, 연수 등 관련 비용

※ 교원의 임용시험 경비, 순회교사제 운영, 교직원 단체 교섭 경비 등 포함

**교수학습활동 지원**

교수·학습 방법의 개발 및 도구 제작 관련 경비, 창의인재 육성 관련 경비

※ 외국어교육, 과학교육, 환경교육, 특수교육, ICT교육, 진학진로교육, 학교평가, 학력평가,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한 학생 선발·배정 경비 등을 포함

**교육복지 지원**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경감 관련 경비, 농어촌 학교교육 개선을 통한 도농 교육격차 해소, 3~5세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제반 경비

**보건/급식/체육활동**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증진 도모, 학교 환경위생관리, 직영 급식의 확대, 학교 체육 활성화 등

**학교재정 지원관리**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 운영비 지원, 통학버스 운영 경비 및 임차료, 사립학교 재정결합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등

**학교교육 여건 개선 시설**

각종 교육시설 증축 및 현대화, 노후 시설물 철거 및 보수, 교육환경 개선, 신설 학교 교재교구 확충비 등

※ 급수 및 냉·난방 시설, 기숙사(생활관) 시설예산 포함

**평생교육**

평생학습 및 컨소시엄기관 운영, 각종 도서 구입 및 자료실 물품 운영

**직업교육**

직업교육 체험연수 및 연찬회, 직업교육 관련 각종 자료 발간 등

**교육행정 일반**

주요 업무 기획 및 보고, 각종 기획 관련 자료 발간, 교육정책 업무 추진 경비, 유관 기관 교육 협력 경비 등

**기관 운영관리**

본청, 교육 지원청, 사업소운영 시설 및 관리, 직속 기관 운영 및 관리 경비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지방교육채 발행에 따른 지방교육채 원금 및 이자 상환, 민간투자사업 임대료 및 운영비 등

**예비비 및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지출(재해/재난)이나 예산의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경비, 국고 및 지자체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

2019년 당초 예산과 2010년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부문별 예산의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이 전체 본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5% 전후로 압도적인 비중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교육 일반이 5% 내외, 평생·직업교육은 0.2~0.4% 수준으로 나타났다. 동기간 예산증감률을 살펴보면 유아 및 초·중등 예산은 61.4%, 교육 일반은 122.3% 증가한 데 반해 평생·직업교육 분야의 예산은 -11.9%로 다소 감소하였다.

〈표 2〉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평생·직업교육, 교육 일반 부문의 하위 항목인 12개 정책 사업별 당초 예산 기준 세출예산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예산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2010년 전체 예산에서 인적자원 운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54.1%였는데 2019년에는 약 5% 감소한 49.2%로 나타났다. 학교교육 여건 개선 시설 항목은 2010년 10.3%였으나 2019년 8.6%로 약간 감소하였고 교수학습활동 지원도 2%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교육복지 지원이 2010년 4.0%에서 2019년 10.4%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보건/급식/체육활동도 1.8%에서 3.5%로 증가하였다. 교육행정 일반은 1.5%에서 1.1%로 미세하게 감소한 반면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항목과 예비비 및 기타 항목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소 증가하였다.

〈표 2〉 지방교육재정의 정책 사업별 세출예산 추이

(단위: 억 원, %)

구분	2010년		2015년		2019년		증감률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유아 및 초·중등 교육	세출예산액	431,089	100.0	543,341	100.0	705,960	100.0	63.8
	인적자원 운용	233,244	54.1	302,355	55.6	347,363	49.2	48.9
	교수학습활동 지원	34,502	8.0	20,536	3.8	42,481	6.0	23.1
	교육복지 지원	17,367	4.0	43,246	8.0	73,360	10.4	322.4
	보건/급식/체육활동	7,569	1.8	13,976	2.6	24,673	3.5	226.0
	학교재정 지원관리	72,981	16.9	103,655	19.1	113,247	16.0	55.2
	학교교육 여건 개선 시설	44,403	10.3	39,353	7.2	60,537	8.6	36.3
평생·직업 교육	평생교육	1,294	0.3	1,008	0.2	1,490	0.2	15.1
	직업교육	528	0.1	52	0.0	116	0.0	-78.0
교육 일반	교육행정 일반	6,402	1.5	3,958	0.7	8,061	1.1	25.9
	기관 운영관리	4,212	1.0	3,711	0.7	5,561	0.8	32.0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8,211	1.9	10,237	1.9	24,259	3.4	195.4
	예비비 및 기타	376	0.1	1,254	0.2	4,813	0.7	1,180.1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365(<http://lofin.mois.go.kr/>),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알리미(<http://www.eduinfo.go.kr/>), 한국교육개발원(2010~2019).

2010년과 2019년 예산 총액을 기준으로 정책 사업별 증감률을 살펴보면, 유일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직업교육(-78.0%)뿐이었다. 전체 세출예산은 63.8% 증가하였는데 예비비 및 기타(1,180.1%)를 제외하면 교육복지 지원이 322.4%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다음으로 보건/급식/체육활동 226.0%,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195.4%, 학교재정 지원관리 55.2%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책 사업 가운데 교육복지 지원은 예산 비중과 규모가 대폭 늘어난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 III. 지방교육재정 지출 구조 분석

#### 1.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정성적 탄력성 평가<sup>6)</sup>

세부 사업들의 내용은 시·도교육청별로 공통적인 것이 대부분이나 상이한 점도 있는데 본고에서는 2019년도 전라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서(1권·2권)의 사업별 설명 및 세부 예산 산출 내역을 바탕으로 탄력성 정도를 평가하기로 한다<sup>7)</sup>. 이는 사업 내용에 따른 정성적 평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먼저 학생 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 학생 수 증감에 따라 같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어야 할 사업은 고탄력 사업으로 분류하는데 예산내역서 산식에 학생 수, 교원 수, 학급 수 등이 포함된 항목이 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학생 수 증감과 다소 관련이 있으나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은 저탄력적 사업으로 분류하는데 산식에 학생 수, 교원 수, 학급 수 등이 명기되어 있지는 않지만 학생 수, 교원 수, 학급 수와 어느 정도 연관되거나 특수교육 등과 같이 학생 수 감소 외 별도의 수요 증가 요인이 있는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학생 수 증감과 관련성이 매우 낮거나 없는 사업은 비탄력적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주로 기관평가, 행정정보 시스템운영 등 교육행정의 내부 관리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표 3>은 146개 세부 사업에 대해 고탄력성 사업(\*\*), 저탄력성 사업(\*), 비탄력성 사업([비])으로 분류한 결과인데 고탄력 사업 27개, 저탄력 사업 71개, 비탄력 사업 48개로 나타났다.

<sup>6)</sup> 정성적 평가에서 사용하는 탄력성 개념은 예산 항목과 하명인구 증감과의 연관성 정도를 의미한다.

<sup>7)</sup> 단 정성적 탄력성은 교육의 질적인 측면은 일정 수준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학생 수 증감에 따른 변화 요인만을 고려하여 판정하였다.



〈표 3〉 세부 사업별 탄력성 정성평가 결과

정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05101]인적자원 운용		
[01]정규직 인건비	**교원 인건비, **지방공무원 인건비, **교육 전문 직원 인건비	
[02]비정규직 인건비	**계약제교원 인건비, **계약제직원 인건비	
[03]교원 역량 강화	*교원연수 지원, *교원연수 운영	
[04]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지방공무원 연수 지원,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	
[05]교원 인사관리	[비]교원 임용관리, [비]교원 인사관리, *순회교사제 운영	
[06]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비]지방공무원 임용관리, [비]지방공무원 인사관리	
[07]비정규직 인사관리	*비정규직 인사관리	
[08]교직원 복지와 사기 진작	*교직원 복지 지원, [비]교직원 복지 대여	
[09]교직원단체 관리	[비]교직원단체 관리	
[05102]교수학습활동 지원		
[01]교육과정 개발·운영	*교육과정 운영,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비]교과자료 개발·보급, [비]창의인성교육과정 운영, *특색교육과정 운영	
[02]학력 신장	*교실수업 개선 지원, *학력 향상 지원	
[03]수업지원 장학활동	*현장 중심 장학활동 지원, *수석교사제 운영	
[04]연구시범학교 운영	[비]연구시범학교 운영	
[05]교과교육연구회 운영 활성화	[비]교과교육연구회 지원	
[06]유아교육 진흥	*유아교육 지원,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유치원교육 여건 개선, **사립유치원 지원	
[07]특수교육 진흥	*특수교육 운영, *특수교육교수학습 지원, *특수교육복지 지원, *특수교육 여건 개선	
[08]영재교육 활성화	*영재교육과정 운영, *영재교육원 운영	
[09]독서교육 활성화	*독서논술교육 활성화, **학교 도서관 운영 지원	
[10]외국어교육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 *외국어교육 활동 지원	
[11]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체험 중심 과학환경 교육 지원, *과학교육 여건 개선	
[12]특성화고 교육	*특성화고 운영 지원, *특성화고교육 내실화 지원, [비]마이스터고 운영 지원, *특성화고 취업 역량 강화	
[13]학교 정보화 인프라 구축	**학교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 *학내전산망 구축	
[14]ICT활용교육	*ICT활용교육 지원, [비]사이버가정학습 운영 및 지원, *스마트교육 지원	
[15]체육교육 내실화	*학교 체육 활성화 지원, [비]체육 육성 종목 지원, **학교 체육시설 여건 개선	
[16]특별활동 지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비]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	
[17]수련 및 봉사활동	*학생 수련활동 지원, *학생 봉사활동 지원	
[18]학생 생활지도	*학생 생활지도 지원, [비]양성평등 및 성교육, *학교폭력예방 지원	
[19]대안교육 운영 지원	*대안교육 운영 지원, *방송통신중·고 운영	
[20]학생 상담활동 지원	*학생 상담활동 지원	
[21]진로진학교육	*진로진학교육	
[22]학력평가 관리	**학력평가 관리	
[23]학교평가 관리	**학교평가 관리	
[24]학생 선발·배정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관리, **대학수학능력시험	
[25]교육연구 및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비]교육연구 운영 지원, [비]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26]검정고시 관리	[비]검정고시 관리	
[27]교과교실제 운영 지원	[비]교과교실제 운영 지원	

<b>[05103]교육복지 지원</b>	
[01]학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특성학교 장학금 지원, *기타 교육비 지원
[02]방과후 등 교육 지원	**방과후학교 운영, *주 5일제 수업 지원,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03]급식 지원	*학기 중 급식비 지원, *토·공휴일 중식 지원
[04]정보화 지원	*정보화 지원
[05]농어촌학교 교육 여건 개선	**농어촌학교 교육 활성화 지원, **기숙형학교 지원
[06]교육복지 우선 지원	*교육복지 우선 지원
[07]누리과정 지원	**누리과정 지원
[08]교과서 지원	*교과서 지원
<b>[05104]보건/급식/체육활동</b>	
[01]보건관리	*학교 보건관리, **학교 환경위생관리
[02]급식관리	*학교 급식관리, **학교 급식 운영, **학교 급식환경 개선
[03]각종 체육대회 활동	**체육대회 지원
<b>[05105]학교재정 지원관리</b>	
[01]학교 운영비 지원	**학교 운영비 지원
[02]사학재정 지원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
<b>[05106]학교교육 여건 개선 시설</b>	
[01]학생 수용 시설	**학교 신·증설
[02]학교 일반 시설	**학교시설 증·개축
[03]교육환경 개선 시설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b>[05301]평생교육</b>	
[01]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 지원, *평생학습 운영 지원
[02]독서문화 진흥	[비]도서관 운영 지원
<b>[05302]직업교육</b>	
[01]직업진로교육	*직업진로교육과정 운영
<b>[05401]교육행정 일반</b>	
[01]교육정책기획관리	[비]교육정책기획관리, [비]대외교육협력관리
[02]교육정책 홍보	[비]교육정책 홍보
[03]감사관리	[비]감사관리
[04]기관평가	[비]기관평가
[05]교육행정 혁신	[비]조직 및 성과관리, [비]행정 개선활동 지원
[06]법무관리	[비]법무관리
[07]의정활동 지원	[비]의정활동 지원
[08]선거관리	[비]선거관리
[09]교육행정정보화	[비]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비]정보보안관리
[10]교육행정자료 및 기록물관리	[비]교육행정 기록물관리
[11]민원 및 행정서비스관리	*민원관리, *행정서비스관리
[12]비상대비계획 및 보안	[비]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
[13]예산관리	[비]예산관리, [비]결산관리
[14]재무관리	[비]재무회계관리, [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15]학생 배치계획	[비]학생 배치계획관리, [비]적정 규모 학교 육성 지원
[16]사학기관 지도 육성	[비]사학기관관리
[17]학부모 및 주민 교육 참여 확대	*학부모 및 주민 교육 참여 확대
[18]시설사업관리	[비]시설사업관리
[19]국제교육문화 교류 협력	*국제교육문화 교류 협력 지원
[20]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	[비]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
<b>[05402]기관 운영관리</b>	
[01]기본 운영비	[비]본청 운영, *지역교육청 운영, *직속 기관 운영
[02]교육행정기관 시설	[비]본청 시설관리, *지역교육청 시설관리, *직속 기관 시설관리
<b>[05403]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b>	
[01]지방교육채 상환	*지방교육채 상환
[02]민간투자사업 상환	*민간투자사업 상환
[03]일시차입금관리	*일시차입금관리
<b>[05404]예비비 및 기타</b>	
[01]예비비 및 기타	[비]예비비, [비]제 지출금 등, [비]내부유보금

다음으로 세부 사업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와 실제 예산증감률 간 비교를 통해 탄력성 정도의 일치 여부를 검토하였다. 실제 예산 변화에 대한 탄력성 판단은 예산증가율이 음수(-)이면 학생 수 감소의 방향과 동일하게 예산이 감소하였다는 의미에서 탄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고탄력). 예산이 증가하더라도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전체 예산 평균 증가율인 37.2% 미만이면 저탄력으로, 그 이상이면 비탄력으로 평가하였다.

지방교육비특별회계 세부 사업들 가운데 예산증가율이 100%를 넘는 항목은 총 53개 사업으로 조사되었으며 전체 예산의 증가율인 37.2%보다 낮은 항목은 총 64개 사업으로 조사되었다. 이 가운데 정성평가 고탄력 및 저탄력 사업이 실제 예산증감률 변화에서 비탄력으로 나온 항목은 예산 적정성 검토 필요성이 높은 항목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비교 결과 예산효율화 관점에서 검토 필요성이 높은 사업은 계약제직원(근로자) 인건비, 사립유치원 지원, 학교 도서관 운영 지원, 학교 정보화 기기 보급 및 관리, 학교 체육시설 여건 개선, 방과후학교 운영, 누리과정 지원, 학교 환경위생관리, 학교 급식환경 개선 등으로 나타났다.

## 2. 학생 수 감소와 예산증감률 간의 정량적 관계 분석

### 1) 세부 사업의 예산증감률

146개 세부 사업 가운데 2013년과 2019년도 당초 예산을 비교하여 예산증가율 및 감소를 상위 각 10개 사업명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4> 예산증가율 및 감소를 상위 세부 사업 간 비교

(단위: %)

예산증가율 상위 사업 순위		예산감소율 상위 사업 순위	
항목	증감률	항목	증감률
행정 개선활동 지원	6,488.9	선거관리	-100.0
학교 환경위생관리	1,563.0	교직원 복지 대여	-98.2
조직 및 성과관리	1,461.1	주5일제 수업 지원	-96.9
지방교육채 상환	1,128.7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92.6
학교 체육시설 여건 개선	1,050.0	학교 평가관리	-83.1
교육과정 운영	899.5	본청 시설관리	-78.9
기타 교육비 지원	730.4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	-75.2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지원	405.2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및 지원	-64.7
교실수업 개선 지원	341.2	기관평가	-62.5
재무회계관리	338.9	학생봉사활동 지원	-47.8

증가율 상위 항목으로는 행정 개선활동 지원이 6,488.9%로 1위를 차지하였고 학교 환경위생관리 1,563.0%, 조직 및 성과관리 1,461.1%, 지방교육채 상환 1,128.7%, 학교 체육시설 여건 개선 1,050.0%, 교육과정 운영 899.5%, 기타 교육비 지원 730.4%의 순으로 나타났다.

감소율이 높은 항목으로는 선거관리 -100.0%, 교직원 복지 대여 -98.2%, 주5일제 수업 지원 -96.9%,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92.6%, 학교 평가관리 -83.1%, 본청 시설관리 -78.9%,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 -75.2%의 순이었다.

### 2) 구간 범위의 적용

경제학에서 탄력성이란 ‘수요량 변화율/가격 변화율’로 설명하는데 이러한 탄력성의 개념을 적용하면 예산증감률을 학생 수 증감률로 나누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예산 감소 혹은 학생 수 증가에 따른 예산 증가의 탄력성을 구해 볼 수 있다. 그런데 탄력성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양(+)의 값을 가져야 하나 교육비특별회계에서는 세종시를 제외하고 학생 수가 감소하는 와중에 예산은 증가하여 음(-)의 부호가 나타난다. 이런 경우 탄력성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기는 곤란하다. 즉 동일 학생 수 감소율일 때 예산증가율이 높은 곳의 경우 탄력성 값이 커져 예산 배분이 비효율적인 곳을 의미하나 동일 예산증가율일 때에는 학생 수 감소율이 낮은 곳이 예산 배분이 더 효율적인 곳인데도 탄력성 값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예산증가율과 학생 수 감소 간의 거리(구간 범위)를 구하여 학생 수 감소와 예산증가율 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방법을 취하기로 한다<sup>8</sup>.

구간 범위는 예산증가율에 학생 수 감소율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예산이 감소하는 경우(또는 증가율이 낮은 경우)에 구간 범위는 작아지며, 구간 범위가 작을수록 예산 배분이 학생 수에 더욱 탄력적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다만, 구간 범위는 예산증가율과 학생 수 감소율 간의 절대치 차이값을 활용하기 때문에 각 항목 간의 단순 서열 비교는 가능하나 비(배)율 비교에는 한계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 3) 구간 범위 상위 및 하위 시·도 간의 비교

구간 범위의 시·도별 비교 결과 그리고 학생 수 감소율과 예산증가율 간의 단순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013~2019년 당초 예산 증가율 상위 시·도로는 지역 J, 지역 C가 예산증가율 하위 시·도로는 지역 L, 지역 N이 각각 선정되었다<sup>9</sup>.

비교를 위해 먼저 지역 J, 지역 C의 항목별 구간 범위 증감률 평균을 구한 후 지역 L, 지역 N의 항목별 구간 범위 증감률 평균과 비교하여 평균차를 구하였다. 이를 통해 예산증가율 상·하위 지역 간에 차이가 큰 항목을 식별해 볼 수 있는데 차이가 클수록 예산 배분의 비효율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sup>8</sup> 예산증가율이 크고 학생 수 감소율도 큰 경우 구간 범위는 커지며 반대로 예산증가율이 낮고 학생 수 감소율도 적은 경우 구간 범위(차이)는 작아진다. 시·도별 구간 범위는 시·도별 학생 수 증감률과 시·도별 예산액의 증감률을 합산하여 산출하는데 예를 들어 학생 수 감소율이 -10%이고 예산증가율이 10%라면 구간 범위(차이)는 20%로 계산한다(예산증감률-학생 수 증감률). 그리고 구간 범위의 부호는 예산증감률의 부호를 따르기로 하는데 예산증감률이 양수값이라면 구간 범위에도 +부호를 사용하여 예산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sup>9</sup> 2010년~2019년까지의 학생 수 감소율과 예산 총액 증가율 간의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하고 상관계수(r)를 구하였는데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시·도는 학생 수 감소와 예산 증가가 나타나 음(-)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구간 범위 상위-하위 지자체 선정에서 세종시는 제외하였다.

〈표 5〉 구간 범위 증가율 상위-하위 시·도 간 정책 사업별 비교

항목/구간 범위	증가율 상위		증가율 하위		평균차	환산 점수
	지역 J	지역 C	지역 L	지역 N		
<b>세출예산액</b>	<b>62.5%</b>	<b>57.5%</b>	<b>46.3%</b>	<b>38.2%</b>	<b>17.8%</b>	<b>177.50</b>
<b>유아 및 초·중등교육</b>	<b>52.5%</b>	<b>56.8%</b>	<b>44.9%</b>	<b>34.7%</b>	<b>14.9%</b>	<b>139.18</b>
인적자원 운용	42.5%	51.0%	45.5%	35.1%	6.5%	31.74
교수학습활동 지원	42.7%	110.6%	47.9%	90.4%	7.5%	4.51
교육복지 지원	43.9%	74.2%	84.9%	59.1%	-13.0%	-13.46
보건/급식/체육활동	109.8%	47.2%	125.8%	56.6%	-12.7%	-4.44
학교재정 지원관리	29.5%	27.3%	13.6%	34.1%	4.6%	7.30
학교교육 여건 개선 시설	171.2%	191.5%	103.3%	-6.6%	133.0%	114.05
<b>평생·직업교육</b>	<b>54.1%</b>	<b>23.6%</b>	<b>32.7%</b>	<b>43.6%</b>	<b>0.7%</b>	<b>0.02</b>
평생교육	62.5%	27.8%	42.7%	44.9%	1.4%	0.03
직업교육	-61.4%	-80.3%	-91.2%	-82.4%	16.0%	0.03
<b>교육 일반</b>	<b>370.3%</b>	<b>75.9%</b>	<b>81.6%</b>	<b>116.6%</b>	<b>124.0%</b>	<b>74.99</b>
교육행정 일반	311.0%	90.0%	118.0%	29.7%	126.7%	14.46
기관 운영관리	182.7%	-19.1%	44.8%	132.5%	-6.9%	-0.54
지방채 상환 및 리스크	614.8%	175.1%	152.1%	654.7%	-8.5%	-2.90
예비비 및 기타	498.3%	21.8%	-11.7%	-47.5%	289.7%	19.75

주) 전체 예산 총액을 100%로 하여 정책 사업별 예산 비중을 반영.

다만, 증감률 차이만을 고려할 경우 예산 규모가 작은데도 증감률 차이가 크면 결과 차이도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증감률뿐만이 아니라 예산 규모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평균차에 정책 사업별 혹은 세부 사업별로 해당 사업이 차지하는 예산 비중을 곱한 후(2019년도 당초 예산 기준) 표기의 편의를 위해 10을 곱한 값으로 환산 점수를 도출하여 비교하기로 한다. 환산 점수는 예산증감률과 비중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기에 지표로서의 타당성이 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12개 정책 사업별 구간 범위 차이 분석에서 증가율 상위-하위 지역 간의 차이가 컸던 항목은 예비비 및 기타(289.7%), 학교교육 여건 개선 시설(133.0%), 교육행정 일반(126.7%)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세출예산 평균차(17.8%)보다는 낮지만 직업교육(16.0%) 인적자원 운용(6.5%), 교수학습활동 지원(7.5%), 학교재정 지원관리(4.6%) 정책 사업 항목에서도 상위-하위 지역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5〉 참조). 양 지역의 구간 범위 평균차에 예산 비중을 반영하면 결과가 달라지는데 예비비 및 기타는 예산 비중이 낮으므로 환산 점수가 19.75점에 불과하였다. 환산 점수가 가장 높은 항목은 학교교육 여건 개선 시설(114.05점)이었고 다음으로 인적자원 운용(31.74점), 예비비 및 기타(19.75점), 교육행정 일반(14.46점)의 순이었다.

한편, 세부 사업별 비교는 2019년도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12개 정책 사업별로 해당 정책 사업 예산 총액을 100%로 하여 그 정책 사업에 속한 세부 사업 예산 비중을 반영한 1단계 비교와 전체 예산 총액을 100%로 하여 각 세부 사업 예산 비중을 반영한 2단계 비교를 실시하였다. 1단계 정책 사업별 세부 사업 비교 결과 인적자원 운용 정책 사업 분야에서는 교원 인건비, 지방공무원 인건비의 환산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교수학습활동 분야에서는 학교 체육시설 여건 개선, 특수교육 운영, 체험 중심 과학환경교육 지원이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복지 지원 분야에서는 방과후학교 운영, 학기 중 급식 지원의 환산 점수가 높았다. 보건/급식/체육활동 분야에서는 학교 환경위생관리, 학교 급식 운영 그리고 학교교육 여건 개선 시설 분야에서는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학교시설 증·개축의 점수가 높았으며 교육행정 일반 분야에서는 시설사업관리, 교육정책기획관리였다. 학교 재정 지원관리 분야에서는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기관 운영관리 분야에서는 교육 지원 청시설관리가 각각 높은 환산 점수를 기록하였다. <표 6>은 1단계 정책 사업별 예산 비중을 고려한 세부 사업 평가에서 환산 점수가 높았던 주요 세부 사업을 정리한 것이다.



10 정책 사업별 세부 사업 간 비교에서 도출된 환산 점수는 각 정책 사업 예산을 100%로 하였기에 각 정책 사업 내에서의 사업 간 비교는 가능하나 전체 사업 간의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표 6〉 정책 사업별 예산 비중을 고려한 세부 사업 환산 점수

인적자원 운용	증가율 상위		증가율 하위		평균차	환산 점수
	지역 J	지역 C	지역 L	지역 N		
교원 인건비	40.4%	45.6%	28.7%	28.1%	14.6%	110.71
지방공무원 인건비	47.7%	45.0%	32.7%	47.8%	6.1%	7.51
교육행정 일반	증가율 상위		증가율 하위		평균차	환산 점수
	지역 J	지역 C	지역 L	지역 N		
시설사업관리	3,068.6%	119.7%	-60.4%	217.6%	1,515.6%	1,026.7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436.2%	25.8%	89.4%	-0.8%	186.7%	322.2
교수학습활동 지원	증가율 상위		증가율 하위		평균차	환산 점수
	지역 J	지역 C	지역 L	지역 N		
학교 체육시설 여건 개선	73.5%	3,119.7%	-46.41%	70.7%	1,584.5%	76.8
특수교육 운영	-42.9%	2,219.7%	38.80%	73.2%	1,032.4%	13.0
교육복지 지원	증가율 상위		증가율 하위		평균차	환산 점수
	지역 J	지역 C	지역 L	지역 N		
방과후학교 운영	43.7%	103.5%	-34.1%	50.2%	65.6%	50.5
학기 중 급식비 지원	-81.4%	124.5%	76.1%	-56.2%	11.6%	25.2
보건/급식/체육활동	증가율 상위		증가율 하위		평균차	환산 점수
	지역 J	지역 C	지역 L	지역 N		
학교 급식 운영	150.1%	8,444.7%	25.5%	56.8%	4,256.3%	31,042.5
학교 환경위생관리	768.6%	969.7%	725.5%	431.9%	290.5%	195.8
학교교육 여건 개선 시설	증가율 상위		증가율 하위		평균차	환산 점수
	지역 J	지역 C	지역 L	지역 N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234.5%	939.0%	238.4%	212.8%	361.2%	1,989.9
학교시설 증·개축	48.3%	378.0%	-77.5%	-5.3%	254.6%	186.0

주 1) 12개 정책 사업 중 주요 6개 분야만 발체, 해당 정책 사업 예산에서 차지하는 세부 사업별 예산 비중 반영.

2) 1위, 2위의 세부 사업을 표시(음영 부분은 정책 사업명, 비음영 부분은 세부 사업명).

2단계 전체 예산 총액에서 차지하는 각 세부 사업 예산 비중을 반영한 비교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sup>10</sup>. 세부 사업이 가장 세분화된 분류 단위이기 때문에 예산효율화의 관점에서는 앞서 살펴본 정책 사업별 예산 비중을 고려한 환산 점수보다는 전체 사업 예산에서 각 세부 사업이 차지하는 예산 비중을 고려하여 도출된 환산 점수가 높은 세부 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검토 결과 총 16개 세부 사업 항목이 5점 이상의 환산 점수를 획득하였다. 이들 사업은 예산 비중을 감안할 때에도 학령인구 감소율을 고려한 예산증가율 상위·하위 시·도 간의 평균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점수가 높았던 것은 학교 급식 운영(1,085.3점)이며 다음으로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170.7점), 교원 인건비(54.4점), 지방교육채 상환



(52.4점), 학교 체육시설 여건 개선(45.9점), 학교시설 증·개축(16.0점),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14.7점), 학교 신·증설(14.6점)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학교 급식 운영은 예산 비중이 낮지 않은 편이면서 구간 범위 평균차가 가장 컸기 때문에 제1위로 나타난 데 반해 제3위에 해당하는 교원 인건비는 구간 범위 평균차는 높지 않으나 전체 예산 대비 사업 예산 비중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환산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표 7〉 전체 예산 비중을 고려한 세부 사업 환산 점수 순위

세부 사업명	전체 예산 대비 각 사업 예산 비중	상위-하위 지역 간 구간 범위 평균차	환산 점수
학교 급식 운영	2.55%	4,256.3%	1,085.3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4.73%	361.2%	170.7
교원 인건비	37.32%	14.6%	54.4
지방교육재 상환	2.32%	226.3%	52.4
학교 체육시설 여건 개선	0.29%	1,584.5%	45.9
학교시설 증·개축	0.63%	254.6%	16.0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7.73%	19.1%	14.7
학교 신·증설	3.22%	45.4%	14.6
시설사업관리	0.08%	1,515.6%	11.7
예비비	0.52%	220.2%	11.5
특수교육 운영	0.08%	1,032.4%	7.7
체험 중심 과학환경교육 지원	0.09%	771.9%	7.2
특수교육복지 지원	0.33%	211.9%	7.0
학교 환경위생관리	0.24%	290.5%	6.8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	0.34%	163.6%	5.5
방과후학교 운영	0.80%	65.6%	5.3

주)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세부 사업별 예산 비중을 반영.

#### IV. 지출 구조 개선을 위한 시사점

본 연구는 교육의 질적인 측면은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각 사업의 탄력성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교육의 질적인 측면이나 정책 변화는 고려되지 못하였으며 사업 간의 정교한 비교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적 판단과 실제 예산증감률 간 비교, 각 세부 사업 간 예산증가율 비교, 예산증가율 상위 시·도와 하위 시·도 간 비교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지방교육재정 지출 구조의 세부 사업을 대상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예산효율화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시해 볼 수 있다.

먼저, 정성적 평가에서 고탄력 및 저탄력 사업이었으나 실제 예산증감률을 활용한 판정에서 비탄력적 사업(사업의 예산증가율이 평균 예산증가율을 상회)으로 나타난 항목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적정 예산 규모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성평가에서 고탄력 사업이었으나 실제 예산증감률 평가에서 비탄력 사업으로 판정된 사업은 계약직근로자 인건비, 사립유치원 지원, 학교정보화 기기 보급 및 관리, 학교 체육시설 여건 개선, 방과후학교 운영, 누리과정 지원, 학교 환경위생관리, 학교 급식환경 개선, 학교시설 증·개축,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이었다. 그리고 정성평가에서 저탄력 사업이었으나 실제 예산증감률 평가에서 비탄력 사업으로 판정된 주요 사업은 교육과정 운영, 특수교육 운영, 학기 중 급식 지원, 교육 지원청 시설관리, 체험 중심 과학환경교육 지원, 지방교육채 상환 등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구간 범위 증가율 상위 및 하위 시·도 간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 사업 간의 비교 분석에서는 인적자원 운용과 학교교육 여건 개선 시설 분야에서 예산증가율 상위 시·도와 하위 시·도 간의 차이가 컸는데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예산효율화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정책 사업 분야임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둘째, 정책 사업별 예산 총액에서 세부 사업이 차지하는 예산 비중을 고려한 1단계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인적자원 운용 정책 사업 분야에서는 교원 인건비, 교육행정 일반 분야에서는 시설사업관리, 교수학습활동 지원 분야에서는 학교 체육시설 여건 개선, 교육복지 지원 분야에서는 방과후학교 운영, 보건/급식/체육활동 분야에서는 학교 급식 운영, 학교교육 여건 개선 시설 분야에서는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세부 사업이 가장 높은 환산 점수를 차지하였다.

셋째, 전체 예산에서 각 세부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한 2단계 평가에서는 16개 세부 사업이 유의미한 환산 점수를 획득하였다. 환산 점수가 높은 세부 사업은 학교 급식 운영,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교원 인건비, 지방교육채 상환, 학교 체육시설 여건 개선, 학교 신·증설, 학교시설 증·개축,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항목은 교원 인건비(37.3%),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7.7%),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4.7%), 학교 신·증설(3.2%)이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세부 사업에 대한 탄력성 정도에 대한 정성평가와 실제 예산증감률 비교 결과, 그리고 학령인구감소율을 고려한 예산증가율 상위-하위 시·도 간 분석 결과가 정합성을 갖는 면이 적지 않다(〈표 8〉 참조). 즉,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학교 체육시설 여건 개선, 학교시설 증·개축, 학교 급식 운영, 방과후학교 운영, 학교 환경위생관리는 구간 범위 상위-하위 시·도 간 비교는 물론 정성평가와 실제 예산

증감률에 의한 비교(정성평가 고탄력, 실제 예산증감률 비탄력)에서도 공통적으로 예산 효율성의 관점에서 검토 필요성이 높은 사업으로 지목되었다. 그 밖에 특수교육 운영, 특수교육복지 지원, 체험 중심 과학환경교육 지원, 지방교육채 상환도 정성평가 저탄력, 실제 예산증감률 비탄력 사업으로 분석되었는데 상위-하위 시·도 간 비교에서도 공통적으로 검토해야 할 항목으로 지적되었다.

〈표 8〉 세부 사업의 종합평가 결과

세부 사업명	상위-하위 시·도 간 비교		정성평가/실제 예산증감률 비교 (해당 항목만)
	정책 사업별 예산 반영 환산 점수	전체 사업 예산 반영 환산 점수	
교원 인건비	○	○	
지방공무원 인건비	○		
계약직근로자 인건비			◎
특수교육 운영	○	○	○
특수교육복지 지원	○	○	○
교육과정 운영			○
체험 중심 과학환경교육 지원	○	○	○
학교 급식 운영	○	○	◎
학기 중 급식비 지원	○		○
누리과정 지원			◎
학교 급식환경 개선			◎
학교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			◎
사립유치원 지원			◎
학교 신·증설		○	
학교시설 증·개축	○	○	◎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	○	◎
학교 체육시설 여건 개선	○	○	◎
지방교육채 상환	○	○	○
인건비 재정결합 지원	○	○	
예비비	○	○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		○	
학교 환경위생관리	○	○	◎
방과후학교 운영	○	○	◎
교육 지원청 시설관리	○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		
시설사업관리	○	○	
교육정책기획관리	○		
평생학습운영 지원	○		

주 1) 상·하위 지자체 비교에서 ○ 표시는 예산지출 비효율 가능성이 있는 세부 사업을 의미함.

2) 정성평가/실제 예산증감률 비교에서 ◎ 표시는 정성평가 고탄력, 예산증감률 평가 비탄력, ○ 표시는 정성평가 저탄력, 예산증감률 평가 비탄력 세부 사업을 의미함.

정성 및 정량평가에서 공통적으로 비효율 가능성이 지적된 항목들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한 예산 효율화 추진이 비교적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상위-하위 시·도 간의 예산증감률 차이가 크다는 것은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불가피한 예산 증액이라고 보기 어렵기에 예산 감축의 여지가 적지 않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계약직근로자 인건비, 누리과정 지원, 사립유치원 지원 등과 같이 정성평가와 실제 예산증감률 간 비교 결과에서 비효율 가능성이 나타났지만, 구간 범위 등을 반영한 상위-하위 시·도 간 비교에서는 비효율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사업도 있다. 이들 사업은 시·도 간 예산증감률 차이가 크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데 보다 구조적인 비효율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자체의 당위성을 포함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참고 문헌

- 경기도교육청(2018). 「2019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
- 국회예산정책처(2018). 「대한민국 지방재정」.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6). 「지방교육재정의 이해」.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0~2019). 「교육통계연보(각 연도)」.
- 교육부(2017). 「지방교육재정알리미 테마별 분석: 설명 자료(2017-4)」.
- 교육부(2019). 「2019년 교육기본통계 결과 발표」.
- 김재훈(2013). 중북관할권모형에 입각한 지방교육재정협력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52(2): 121-162.
- 전라남도교육청(2019).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예산서 1, 2」.
- 한국교육개발원(2010~2019).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 분석 결과(각 연도)」.
- 한국교육개발원(2018).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
- 교육통계서비스. (<https://kess.kedi.re.kr/index>).
- 지방교육재정알리미. (<http://www.eduinfo.go.kr/>).
- 지방재정 365(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http://lofin.mois.go.kr/>).